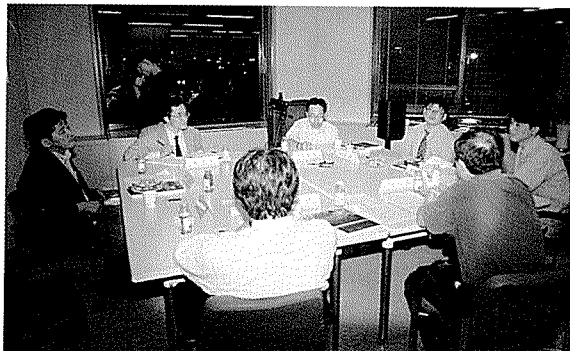


### 좌담 : 건축과 도시, 그리고 지역성

#### Architecture, City and Regionalism

일 시 / 1997. 9. 17. 18:00~  
장 소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의실  
참석자 / 구영민(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 김용하(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 서규환(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해문화」 편집주간)
- 이호정(무이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본부장)
- 전진삼(월간 「건축인」 편집주간, 건축비평가)
- 조원민(무이건축 대표, 인천 경실련 집행위원장)
- 최원식(인하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창작과 비평」 주간)
- 황영삼(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황영삼, 정리 / 이호정)

구영민 \_\_\_\_\_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인천지역의 현주소, 지역성 등 조금은 난해하고 범위가 넓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인천지역 건축의 방향제시에 대한 의견모음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시탐색'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고 한참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좌담회의 기본적인 틀은 진행해 나가면서 물고를 트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으신 황영삼교수께서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지역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최원식 \_\_\_\_\_ 처음부터 지역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꼬일 여지가 있으니깐요. 먼저 인천지역의 문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영민 \_\_\_\_\_ 에, 그러시죠. 먼저 최원식 교수님부터... 아무래도 인천지역에 오래 사셨고 인천문제에 대해 오래 다루어 오신 바 있으시니 먼저 이야기 해주시죠.

최원식 \_\_\_\_\_ 인천에 사시는 분이나 인천을 들르시는 분이나 다 느끼는 것 이지만 인천은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까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는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천이라는 도시에는 일단 중심광장이 없습니다. 과거 80년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시위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다중심 혹은 중심이 없다는 얘



기지요. 공간적 할거 상태이죠, 왜 공간적 할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원래 부평 도호부가 있고, 인천도호부가 있었죠. 그런데 개항과 함께, 일제의 교두보로서 하인천역 근방 즉, 포구에 새인천을 건설했죠, 그러면서 일제는 옛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를 인천지역에서 털어냈어요. 즉 까뭇가 이야기하는 과거가 없는 도시, 과거를 지워버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천이라는 도시의 기형성이 나타나죠. 그다음에는 개항장으로부터 서서히 넓혀갔죠. 부평까지 포함 되면서요, 전통적인 코어가 해체되면서... 이 도시처럼 무계획적인 도시가 없죠. 한편으로 일제시대에는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했죠. 중국교역의 거점이고 남북교역의 중심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양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즉 잡종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시대를 보내면서 잡종성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름대로 근대건축사에서는 중요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대건축에서도 없어진 건물이 많습니다. 외세의 교두보로서 세워졌지만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도시인데 해방이후 도시가 더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건물을 보존시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간적 활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의 복원입니다. 옛인천지역의 정체성을 찾자는 소박한 수준에서는 안되며 새인천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재 창조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잡종성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건축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인천지역의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존스톤빌딩으로 인천각이었지요. 그걸 부수고 지은 한미수호 100주년 기념탑의 철거가 내 소원입니다. 거기에 인천각을 복원해서 거기서 양식을 먹어보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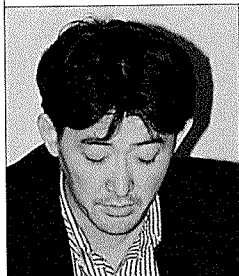
현재 인천에는 바로 중심광장, 또는 중심건축이 없습니다. 이번 좌담에서 이런 점을 얘기하고, 토론도 하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영민 \_\_\_\_\_ 최고수님께서 인천의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심성의 회복을 다루게 된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특히 광역이라는 행정적특권을 부여받은 지금의 현실에서 말입니다. 즉 현재 인천은 웅진, 김포의 검단, 강화까지 포함합니다. 인천의 지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범주 속에서 얘기를 해야 할지, 지금의 상황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만.

서규환 \_\_\_\_\_ 인천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다는... , 역사는 잘 모를뿐더러 제 경우 92년에 돌연히 인천에 오게되어 관찰한 것인데, 첫째 중심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즉, 중심공간, 중심건물, 중심거리가 없습니다. 둘째, 단절된 도시공간입니다. 도심을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도시는 단절됩니다. 셋째, 인천의 중요한 지리적특징이 바다인데, 바다가 없는 도시 즉, 바다와 단절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느 도시 어느 건물이든 입구가 중요하데, 인천에는 입구가 없습니다. 첫인상인 입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참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나오면서 인천이 어디냐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있습니다. 결국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의 주변도시라는 것이죠 즉 서울의 옆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치지리학에서 서울의 종속도시라는 것이죠. 여섯째, 정치경제학, 행정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속질주한 부산물로 공

업단지가 있습니다. 일곱째, 종속도시로서의 위치로 인해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다시말하면, 여기 머물러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말이죠. 인천출신의 유력한 사람중에 출세한 사람은 서울로 이주합니다. 인천에서는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주인의식이 부족한 실례로 매체가 없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체가 부족합니다. 인천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죠. 여덟째, 지식인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대학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교수 대부분이 대체로 서울지향적입니다. 제 표현에 불쾌해 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 즉,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가 표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지역은 특색이 없다' 라고 하지만, 굳이 있다면 물결이 흉악한 추악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특징이 없는 특징이랄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이 좀 심하다는 것 뿐입니다.

구영민 \_\_\_\_\_ 두 분 선생께서 간단하게 인천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체의 부족에 대



해서는 인천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규환 선생께서는 「황해문화」의 편집주관을 맡고 계십니다. 전진삼 선생도 거기에 글도 쓰시고, 건축비평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황해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진삼 \_\_\_\_\_ 인천출신이면서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황해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우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타개하려는 지식인층의 모습이 좋았고, 또하나 지식인층의 주변에서 지식인층을 도우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의 유력한 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황해문화」는 3, 4 년전 즉, 90년대에 창간된 책으로 그 편재나 지향하는 목적의식과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90년대가 지향하는 매체에 대한 부여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특하고 유익한 주제 의식에 대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규환** \_\_\_\_\_ 가능하면 인천문제를 많이 다루려 합니다만 필자가 없습니다. 인천문제를 다루려면 인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해문화」 만큼은 인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조원민** \_\_\_\_\_ 제생각으로는 대중성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여기있는 분들은 황해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성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인천에 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현재 인천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10여 분 정도이죠. 그러다보니 대개 나쁜 뉴스만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서울 등지에서 보기에는 살기 삭막하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시절 인천에 연고가 있었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과 비교해서 인천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중매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천을 도시계획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천은 빨래를 하려고 벗어놓은 옷들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천은 도시계획적인 중심을 가지고 정리된 도시가 아니라 개항부터, 처음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늘어나 부평까지 확대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공단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볼때 인천은 희생물입니다. 다른지역에 공단이 없을 때 인천에 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수준 자체가 낮은 일부러 해왔습니다. 나중에 생긴 공단들은 첨단공업을 중심으로 하게되니까 비교적 깨끗한 공단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물동량 측면에서도 인천은 서울의 입자 항문입니다. 인천으로 모든 물자를 들여와서 생산하고 남은 쓰레기들은 또 인천으로 옵니다. 도시계획적인 틀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 그리고 전후(戰後) 역사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인천이야말로 건축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천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맡은 분들은 기존도시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니 많은 문제가 걸리게 되고 시에서는 송도신도시 등의 새로운 계획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

천이야말로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정** \_\_\_\_\_ 지금까지는 건축인들끼리만 이야기하다가 건축이외의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려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건축이외의 분야에 계신 분들 이 도시와 건축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최원식교수와 서규환교수 두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건축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사회과학 내지는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도시의 문제점이라 생각되는데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지금부터 저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제점을 장소성(Placeness, Genius loci)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생각과 유사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 단어에 대한 개념정립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간과 장소 그것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공간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우주공간 혹은 물리학적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간이 장소화가 되면 그 공간은 의미가 있고 활기있는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소화된 그 공간에서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가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 장소화되면 그 도시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애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를 장소화시킬 수 있을까?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어떤 공간을 장소화시키기 위해 꾸며야 할 공간적 장치가 학자들과 건축가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인자를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사막에 혼자 서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기둥 하나를 세워 놓았을 때 훨씬 다른 심리적인, 육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례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들 수 있겠죠.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파리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시이건 그도시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타워(남산타워, 도쿄타워 등)가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는 방향성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도시도 방향성이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어떤 흐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은 북악산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에 펼쳐진 세종로는 옛 조선의 육조거리로, 계속 나가면 남대문이 되고 서대문과 동대문이 직교축을 이루는 과거로 부터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즐기없는 인생, 즐기없는 소설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즐거웠던 도시는 거기서 사는 사람 뿐 아니라 행정가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성 혹은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역사나 상징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로 매우 강한 작용을 합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시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예를들어 강릉, 남원, 혹은 안동에서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신흥도시들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리아의 쾰른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일부 도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극히 다른 도시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는 경계성입니다. 즉 도시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중심성과 위계성과도 중요한 관계를 가집니다. 앞서 서규환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입구와 퇴로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즐겨하는 놀이가 자기 주위에 모래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자기영역을 확보하는 작업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실존적인 자기영역확보 행위이죠. 특히 현대도시에서는 강한 중심성과 위계성 그리고 방향성으로 경계성을 대치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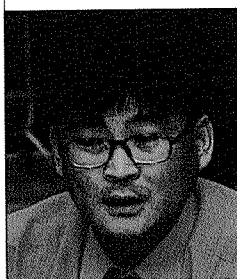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것들을 모두 갖추어 놓았을 때 대체적으로 도시에는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되고, 따라서 그 도시민들은 자기도시에 애착감을 가질 수 있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며 비로소 자기가 그 도시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우리 도시라는 생각, 그리고 더욱이 그 도시에 산다는 것을 자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는 정말 살아있는 숨쉬는 생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규환 \_\_\_\_\_ 사실 공간과 장소의 철학적인 혹은 이념적인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없다' 라고할 때의 중심을 '중심들' 이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도시공간이 발전되는 양상에서 인천의 지형학적인 구조에서도 하나의 중심을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화시키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중심적인 공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이념으로는 바우하우스, 즉 모더니즘, 그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중심을 형성시키고 위계화, 질서화시키고, 도시공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인천을 하나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을 부각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발전가능성 있는 곳 즉 송도, 신포동, 문예회관 등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송도와 문예회관이 위계질서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름대로의 공간이 다른 논리로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문화적인 혁명, 문화적인 현대화에 대한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공간이나 건축이념의 심도있는 평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호정선생께서 이야기한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비단 인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장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하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이호정 \_\_\_\_\_ 서교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데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어 다른 것이 그것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의 흐름 자체가 어느 줄기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중심을 갖지 않고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내지는 기풍을 어기

면서까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각개인이 나름대로 커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큰 틀은 존재해야 하고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영민 \_\_\_\_\_ 인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김용하 박사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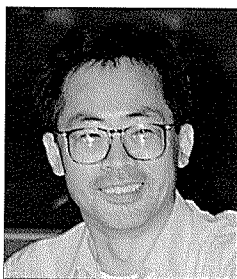
전진삼 \_\_\_\_\_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통해서 인천을 진단하려는 생각인데 그러면 도시에 대해 건축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건축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정도 완성도나 특질을 차지했을 때 과연 우리인천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 아까 서규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심들' 이라는 이야기, 저도 그 중심들이라는 데 대해 공감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인천과 같은 도시에서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예 그 시점에서 건축 하나하나로 돌아가서 각자의 전문성이 찾아진다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거대한 도시공간구조를 새삼스럽게 총괄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구영민 \_\_\_\_\_ 문제점에서 이제 압축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아까 서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심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전진삼선생의 말씀, 이호정선생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공간 구성요소 등, 그것들은 심리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문제가 다루어졌으니까 이제 김용하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용하 \_\_\_\_\_ 저는 학부때는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인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또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인천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있게 분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손종목교수가 서울의 아사지만 정리한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계획이 없다는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없이 어떻게 인천이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계획은 누군가에 의해 있었습니다. '인천은 잡종성이다' 라고 최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창구로서 일시적으로나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또 그밀에 중앙동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확장 및 개발의 비교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최초로 상수도를 노랑진에서 끌어왔고 송림 배수지를 만듭니다. 또 보급선이 오면 배에 물을 실어갔습니다. 1890, 1900년 경인철도가 건설된 것도 계획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이 계획없는 도시는 아니었고 계획은 있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또 이호정선생의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에 도심 또는 관공동 혹은 문학산 밑의 역사에 대한 분석에 대해 연구한 자료는 없고 문제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황해문화가 좀더 인천에 관심을 두고 지역적인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하는 입장에서, 인천인의 입장에서 제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경험한 것 중 인상에 남는



것은 문서고에 대한 좋은 환기시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배려이겠지요... (중략) - 그러나 인천은 정말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송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복부, 강화도, 검단 등 엄청난 땅이 건축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영민 \_\_\_\_\_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인천은 근대화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인 제콕스가 60년대 미국의 위대한 도시들을 '죽음의 도시' 라고 표현했던 때에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풍토적인 것, 존속 가능한 기존의 것들에 대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벤츄리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어진 기존의 것들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것들을 비상투적인 것들로 만들면서 자기네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렸던, '복합성과 대립성' 이니 '라스베가스' 등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인 제콕스의 에세이와 벤츄리의 책은 원인과 결과적인 사건이 된 셈이지요. 우리 주변 특히,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와 철도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주변의 공장들, 어지러운 간판들이 인천 근대화의 유물이라할 때, 그것도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해서 간판들을 새로운 지평의 장소라고 한 것처럼, 인천도 산업적인 버내쿨라 (Industrial Vernacular)를 그대로 끌어 안으면서 무계획적으로 산만하게 흩어진 것도 끌어왔을 때, 인천이 가지는 탈 중심적, 또는 다중심적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리오타르가 얘기하듯이, 이성중심의 전체가 소멸되고, 작은 것, 부분, 주변이 부각된다는 현대의 경향을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주제의 범위를 돌려 인천의 긍정적인 면, 또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규환 \_\_\_\_\_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자면서, 건축의 문제가 결코 건축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인천의 공간문제가 새롭게 갱신되려 한다면 다음 4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경제적인 불평등의 극복, 이런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미학화 하자는 정서 등 '우리시대의 정서가 사치만이 아니다, 문화만이 열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학교육이 역시 중요한데, 미학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시(市)와 더불어 협상이 중요한데 시만으로는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일반 시민 단체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문화운동과 더불어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국의 도시공간을 미학화하지는 날도 정하고, 반성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촉발시켜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째, 도시공간 전체를 완전히 합리화 하지는 것은 인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공간 몇몇만을 선택해서 해야 하고 그곳에서는 총체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심미적 품격주의', 이것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정한곳에서 만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건축가들이 개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건물이 주변환경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이죠. 그런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촉발시키는 것인데, 그런의미에서 건축은 다른 여타문제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간의 색깔, 버스, 가로등, 가로의 꽃, 수퍼그래픽 등의 통일성 등이 인천의 정 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촉발시켜 보자는 운동이 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구영민** \_\_\_\_\_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황영삼교수께서 도착하셨는데 좌담장소 연락을 잘못받으신 것 같습니다.

**황영삼** \_\_\_\_\_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와도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원민** \_\_\_\_\_ 간략히 말해서 인천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막 그것을 압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영민** \_\_\_\_\_ 이것만 마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되고 했으니까. 제가 특정원고를 조사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진삼선생께서도 주안역, 비무장지대 등 황해 문화를 통해 인천건축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글을 실으신 것으로 아는데, 인천의 문제를, 특히 건축적인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진삼** \_\_\_\_\_ 서교수께서 말씀 중에 심미적 품격주의라는 좋은 언어를 써주셨는데 저도 생각은 비슷하나 약간 구체적인 것으로 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계양산, 청량산, 문학산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운동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간에 그 도시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그

도시의 자연환경 등, 예를 들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산 혹은 자연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찌든 도시라는 혐오스런 이름이 주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의 슬로건으로 인천이야말로 'Clean City' 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제철이 있었던 북큐슈만 하더라도 지금은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시식할 수 있을만큼 물이 맑아졌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매개와 환경이라고 하는 매개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건축은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컨디션을 존중하고 기왕에 있는 가로에 그 속성을 두고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성격을 부각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이 CI 작업을 통해서 도시를 하나로 묶은 노력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교수 말씀대로 스트리트 퍼니처나 거리를 잇는 요소들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들을 하나 하나 뭉치면, 물론 건축가의 역할이 일부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부러 중심성을 통해 쫓아 나가지 않아도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무정형의 상태보다는 많은 색깔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계획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도시가 어떻게 누가 어떤 시정(市政) 책임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작은 것로부터 작은 슬로건이 있는 상태에서 몇가지 건축적인 혹은 사회적인 장치에 의해서 커갈 수 있다면 인천의 도시는 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주안역이 바로 그 한 사례였어요

**김용하** \_\_\_\_\_ 특히, 인천은 다른도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제 자동차 1000만대, 인천은 60만대가 되어 길도 보면 모두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길이 좋은 길인지 송림동에서 청림동 넘어가는 2차선 도로의 플라타너스가 있는 도로가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도 인천 도호부든지 부평도호부든지 서울로 가는 옛길이 있었습니다. 그 옛길을 찾아서 그길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공장을 유치시키다 보니 해안선들이 도두 직선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 좋은 것인

지... 강화도도 그 해안선이 공유 수면매립계획에 다 잡혀서 모두 직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유공원 위의 광장을 확장시켰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는 인천항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전에 있던 것보다, 제입장에서는, 인간적이 아닙니다. 규모만 커졌지 별로 안좋습니다. 이런 일에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난간 하나라도 심미적 품격주의에 의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동해안은 일조가 유명하지만 서해는 낙조가 유명합니다. 그런 자원들은 인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노을이 질때 연인들이 앉아서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한테 안 타깝습니다.

**구영민** \_\_\_\_\_ 제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하나의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의 테라스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바라볼 수 있는 바다는 있는데 다가갈 수 있는 바다가 없다는 것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도시, 항구의 도시' 라는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역으로부터 걸어서 자유공원을 걸어올라가 바다를 볼 수 있는 행로, 그리고 제 2부두를 오픈하여 시민들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하인천역과 율미도로 연장되는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천 도시디자인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변계획 등을 착상한다면 이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좋은 특수한 워터 프론트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천의 많은 섬들, 약 138개의 섬, 또한 많은 엄청난 관광자원일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원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등의 계획이 고작이죠. 그리스처럼 많은 섬들을 관광자원화했다면 도시의 색깔을 부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이 해안, 섬 등의 천혜의 환경을 관광자원화하는 추세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엄청난 대비, 예를 들어 송도 신도시 혹은 영종도 신공항이 인천에 어떻게 영향을 줄것인가도 심각하게 이야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황영삼** \_\_\_\_\_ 간담회에 나오면서 생각한 것은 인천이 활기가 없다, 도시로서의 포근함이 없다할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애가 엄마와 떨어지면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들어 여행을 떠났다고 했을때 과연 인천에 대해 우리 자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동해에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와 닿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즉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으니까 관계형성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정** \_\_\_\_\_ 앞에서 서규환교수께서 말씀하신 사회문화운동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축을 문화와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양과목으로 건축과 주거환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건축과 학생들한테 건축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치 건축 혹은 문화를 만들어내갈 이들에게 건축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가 아니라 도시민들입니다. 그들의 건축문화를 보는 눈이 높아질 때 만이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각 구마다 구민회관,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장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또한 그 지역에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삼** \_\_\_\_\_ 저는 인천사람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정신적인 결핍에 빠져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해 문화가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인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10여년 전부터 우리문화가꾸기모임이나 해반 갤러리 등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따져서 날카롭게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단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도록 하는 것, 환경공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느끼도록 건축적인 풀리를 세워서라도 말입니다.

건축을 투영시켜서 풀어나가면 재미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호정** \_\_\_\_\_ 도시의 지역성을 찾는데 건축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은 이런 문제에는 오히려 지역의 문화가 더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은 그 다음이죠. 하나의 장식 혹은 실행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건축가임에도 건축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건축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에서의 건축은 크게 두가지의 줄기

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개항장 혹은 동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의 발전과 둘째는, 구월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그것입니다. 1980년대초 인천은 지금의 구월동에 신도심을 만들고 시청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월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의 도시설계는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이곳이 시민들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행정,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활기넘치는 도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서규환**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개별건물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은 어떤 심미적 품격주의라는 룰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학교만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친환경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공공 건물 중에서 심미적 품격주의를 통해서 한차원 성숙시켜 방침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공간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름을 빌리면 Collective Consumption 즉, 집합적 소비영역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집합적이라는 것은 사적 소유영역의 개념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는 개별적으로는 사적 소유영역이지만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사실 공적이라 봐야 마땅합니다. 여기에도 좀 적극적인 건축가의 역할, 즉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건축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건물은 멋진데 완공후 건물 간판이 엉망정창인 경우가 많은데 왜 간판설계는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조원민** 제가 답변좀 해 드릴까요? 인문계통을 전공하신 분치고는 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고민거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인천은 과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집장사 위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건설회사 측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쁘고 좋은 건물 설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실상은 건축사 200여명 중에서 심미안을 가지고 인천을 위해 힘써 보자고 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약 3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

운동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제 자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의 목적은 진정 시민운동을 통해서 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받고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문화예술인들 즉, 무용, 미술, 음악, 문학인들은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하게도 건축가들은 인천에서 자기네끼리도 만나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해 관심도 없는 건축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천에서 밥벌이로 건축을 해야겠다는 무면허 건축사무소 사람들이 전체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간판까지 설계합니다. 그러나 완공후 약 2년정도만 지나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반창고 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규합체 혹은 풍토가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인천시민의 복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없느냐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어야만 합니다. 인하대, 인천대를 중심으로, 건축과 교수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문화인의 모임을 결성하여, 기구 아닌 기구가 형성되고 모든계획이 거기에서의 스크린 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이런 힘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워져서는 안되는 건물이 이 순간에도 세워지고 있다는데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엘리트들이 뛰어들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고 건축인들 역시 무언가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전진삼씨가 말한 것처럼 널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정열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여기서 좌담회를 마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모임이 지속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정해진 주제에 의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지라도 자주 모여서 인천의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조선생 말씀처럼 기구아닌 기구를 결성하여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르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